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례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49
2022.4.3.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_ 마태복음 20:28

오늘의 주요기사

2-3 특집기획

4 책 속의 명문장

5 한국기독교공보 4월 특집

6 청소년순 겨울수련회

7 유소년순 성경필사

8 남녀선교회 사역 소식

9 학원선교부, 싹틔나무

10 교단소식, 문화컨텐츠

11 찬양일기



꽃이 피듯, 열매가 맺히듯

겨우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던 나무에 어느덧 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듯 보였던 그 가지 끝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꽃을 피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다시 열매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꽃을 피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귀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해봅니다.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②

교인들의 선교 이해에 관한 연구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목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I. 들어가는 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167개국에 22,612명이다. 우리 교단(통합)은 2022년 3월 현재 91개국에서 797가정 1,517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이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와 대비하여 파송 선교사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에 힘쓰는 것으로 보여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들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선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시간과 헌금을 드려서 선교를 돕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열심만으로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미래의 한국교회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교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적인 선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II. 교인들의 선교 이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적일 때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선교는 선교사의 사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궁극적 사명이다. 필자는 교인들도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인들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서울·경기 지역의 여덟 개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크게 두 영역으로, 먼저 교인들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령대와 신앙연수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실제 선교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교차분석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분석 내용 일부만 소개한다.

A.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먼저 교인들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령대와 신앙 연수로 나누어 파악해보았다.

1. 당신의 생각에 선교는 누구에 의해 주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대부분 교인이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를 연령대와 신앙연수에 따라 교차분석을 해보았더니 조금 다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이 조사는 코로나19 전에 행해진 것이며, 조사 대상 여덟 개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교회이다. 규모에서 대형, 중소형 교회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각각 네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선교는 누가 주도하는가에 대한 빈도는 하나님 77%, 선교사 5.5%, 파송 교회 5.5%, 선교단체 5%, 후원자 4.5%, 총회 2%였다.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간의 한국교회 선교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시스템과 전략의 부재로 말미암은 미숙함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거나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했던 것은 바로 잡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의하면 신앙연수가 5년 미만의 교인들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계속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2. 선교는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는 실제로 선교를 누가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복수 선택, 다중응답). 흥미로운 것은 선교사가 수행한다고 표시한 빈도도 높았으나 선교 후원자(교인)가 수행하는 것이라는 응답도 높았다. 필자는 다른 설문의 응답과 비교하면서 이를 부정적인 응답이라고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선교사를 선교의 중요한 참여자라고 인정하고 동시에 본인들의 선교 헌신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선교의 참여자로 자신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대나 신앙연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도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3. 선교 활동에 속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선교 활동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 질문에서(복수 선택 가능), 통전적 선교 관점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 두 가지가 고른 선택을 받았다. 그중에 복음 전도 부분에서는 제자훈련과 복음전도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에서는 사회봉사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모두가 고르게 선택을 받았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선교 활동의 내용에 대해 매우 건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4. 당신이 생각하는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통적 의미에서의 선교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 구분에 따른 선교의 범위를 물어보았다. 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 모두’를 선택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연령대나 신앙연수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B.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설문 문항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인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 당신의 교회가 수행해야 할 선교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가 수행해야 할 선교의 영역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여기에서도 가장 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는 ‘모두’에 가장 많은 선택이 있었다. 이는 교인들이 선교의 영역 이해가 단지 해외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해외를 포함하는 ‘세계’를 선교의 영역으로 보면서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교회는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석하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대부분 응답

자가 관심이 많다고 대답했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연령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젊은 세대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선교를 배우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알림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출석하는 교회가 해외와 국내 선교, 어디에 더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까?

선교를 해외와 국내로만 단순화하여 나눈다면, 출석하는 교회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빈도에서 ‘해외 선교’라는 응답과 ‘비슷함(해외와 국내)’의 선택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60대 이상은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집단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II. 나가는 말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간의 한국교회 선교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시스템과 전략의 부재로 말미암은 미숙함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거나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했던 것은 바로 잡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한국교회 선교의 모판이요,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결론을 요약하자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선교 변화로 바뀌기 위한 여력이 아직은 있다는 긍정적인 표시로 여겨진다. 동시에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교회 밖에서의 활동이 편차가 많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선교적 삶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사역 능력은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된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가 바른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성경적이고 통전적인 선교관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교인들에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올바른 선교를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복음은 그 진실성의 여부를 인간의 경험에 빚대어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접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경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까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 혹은 계속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 배움은, 참된 배움이 모두 그렇듯이, 전통의 안내를 받고 전통에 의해 단련되는 연습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전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결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유래한다.

이해에 도달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하나는 ‘지식’이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믿음이 없는 앎은 없으며, 믿음이 앎에 이르는 길이다.

그 전통은 먼저 성경 안에, 그리고 성경이 1,500개 언어로 번역되고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수없이 다른 환경 아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계속 해석되어 온 그 해석의 역사 안에 구현되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지식의 전통 안에 ‘거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활동, 곧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과거에도 행동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칼 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사람에게는 자기를 만나 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에게에는 그분을 자기와 구별할 수 있고 또 자기를 그분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이 그분의 신성과 말씀과 뜻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선택받는다라는 것은, 택함받은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신약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천명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몸소 지니는 것을 뜻한다.

이 지평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모든 행동의 지평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는 장래의 일이기 보다 이미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도든, 가장 공적인 성격을 띤 정치적 행동이든 - 이 그분에게 드러지고, 그것이 그분의 나라 어디에든 배치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뜻 깊은 역사에서 뜻 깊은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실마리가 있다 즉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분이 베일을 벗길 마지막 때를 연기하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미 새 날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감춰져 있음을

알기에 조금해하지 않고 인내하고 깨어 있는 것이며, 예수의 통치를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는 온통 기쁨이 폭발하면서 시작된다. 배척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 있다는 소식은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진짜 뉴스였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교에도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것은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그분의 선교임을 명심하라.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언제나 그분의 선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선교를 교회에 주어진 명령으로 강조할 때 따르는 위험은 선교 사역을 하나의 선행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일꾼이기보다 오히려 선교의 장소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권능의 사역을 수행하고, 새 시대의 징조를 창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역사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시작이 우리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의 현존, 곧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데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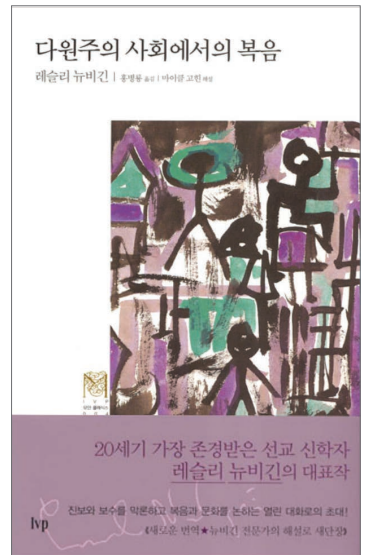
선교의 중심에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선교는 곧 행위로 드리는 찬미다. 선교의 속 깊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핵심적인 계시 사건을 기억하고 재연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장차 선택한 것은 긍정하고 악한 것은 제거할, 역사의 종점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한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가 그분이 남긴 유산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는 선교사역을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선교의 일차적 본질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살지 않고 이 시대의 권력과 편하게 동거하면서, 어둠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고 살아 계신 주님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로 열렸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 지음, 홍병룡 옮김 IVP, 2007

한국기독교공보
4월 특집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인가?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4월 특집으로 게재된 기사를 전재합니다. 함줄함울

2020년 제 105회 총회에서 ‘전국 노회원 대상 노회별 장애인식교육 연1회 정기실시’가 채택됐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교회와 장애인식개선”이란 책도 출간하였다.

지체중증 장애인인 필자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 게다가 “같이 가자”고 내민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 교회의 활동에 지체장애인으로 참여하는 일에 환영받지 못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이같이 말했다. “계윤아. 내가 너를 업고라도 다닐테니까 수학여행에 같이 가자.”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교회와 반드시 같이 가자고 채근했던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고 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A church with person disabilities)는 장애된 교회(disabled church)이다.” “지금 설교하실 때 장애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활동인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회현장에 장애인 목회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러한 주장과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성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disability)는 손상(impairment) 혹은 신체적/정신적 약함(weakness)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제 혹은 차별하는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서에서도 ‘약함/손상’과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출4:11에서 하나님은 “언어능력, 청력, 시력, 이동능력이 약한 자”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약함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고후12:9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다. 신구약의 두 말씀은 약함 자체가 불능(disability)이거나 무능(inability)의 증표가 아님을 공통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히12: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영어표현을 보면 다리를 저는 자 즉 이동능력에 약함을 가진 자가 장애인(the disabled)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레위기는 손상입은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레위기 19:14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 이와 반대로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가 바로 욥이다. 욥29: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구약의 이 말씀은 약함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구성원의 하나가 되고,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일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을 가르친다.

완전한 건강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사회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인 약함을 장애로 만들었다. 아울러 소극적인 관점으로는 이 약함 자체를 죄의 결과, 저주나 불신앙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적극적인 관점으로는 예배당이나 교회 직제나 활동에 약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환경적인 장벽(barrier), 배제나 소외 등의 부정적 접근,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등'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상처를 주거나 장애인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한세인 등의 용어가 존재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롬3:22, 10:12, 약3:1, 골3:11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테스다 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미문에서 만난 장애인, 그리고 술한 시각, 청각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 “장애를 입은 몸을 선택한 사건(Cox Jennifer Anne:2017)”이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적/종교적/정치적으로 더 나아가 가족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을 찾아가서 만날 때, 비장애인의 심정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셨다. 그리도 그들을 변화시키셨다. 단지 몸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성서는 일관성 있게 가르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이다.”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약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이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는 교회 공동체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계윤 목사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

너와 함께 성장하는 '10대' 그리스도인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련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된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10대 그리스도인 시리즈"온라인 수련회가 어느덧 시즌 4를 맞이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참여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는 풍성한 경험을 청소년숲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2020 여름 온라인 수련회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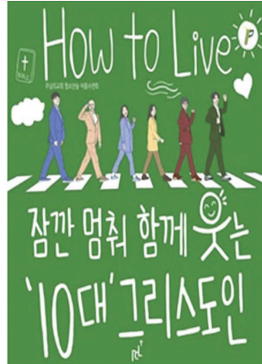
시즌1



2021 겨울 온라인 수련회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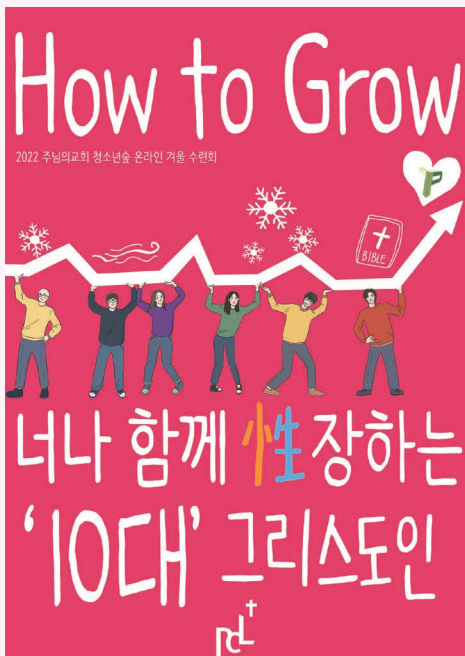
시즌2



2021 여름 온라인 수련회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시즌3



2022 온라인 겨울 수련회

시즌4 수련회는 2022년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었으며, 본문 말씀은 요한1서 4장 12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수련회 시작 한 주 전 주일에 “성장이의 세포들”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기에 민감한 주제들을 지혜롭게 다뤄보며 수련회의 포문이 열렸고, “너나 함께 성장하는 10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아래 감성과 개성, 본성, 이성, 품성, 관계성 등 6가지 성의 영역을 다양한 미션을 통해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즌4 온라인 수련회는 청소년숲 학생 및 교사 236명, 부모님 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토크쇼 - 성장이의 세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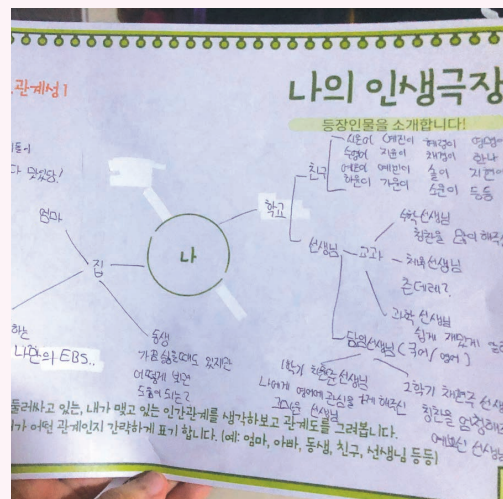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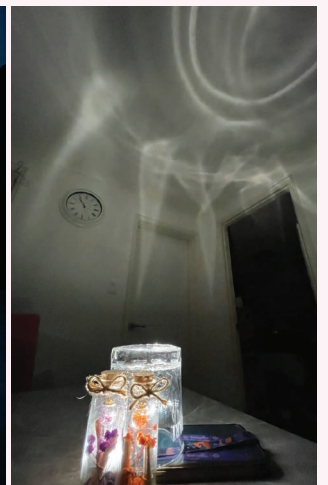
굿즈박스 안에 있던 식물을 심고 이름을 지어주며 관계 맺는 것으로 스타트 미션이 진행 되었고, 월요일 아침 진행된 사전 Zoom 미팅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장하기를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너랑 나랑 함께 TV’를 통해 6가지 영역과 관련된 ‘데이 미션’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화요일에는 You are Special(개성)과 뿌리 깊은 나무(품성) 미션이, 수요일에는

감성 러브레터(감성)와 인생극장(관계성) 미션이, 목요일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관계성)와 Next Level(본성) 미션이, 금요일에는 너의 연애는 안녕하니?(이성)와 플로깅 챌린지(품성) 미션이 공개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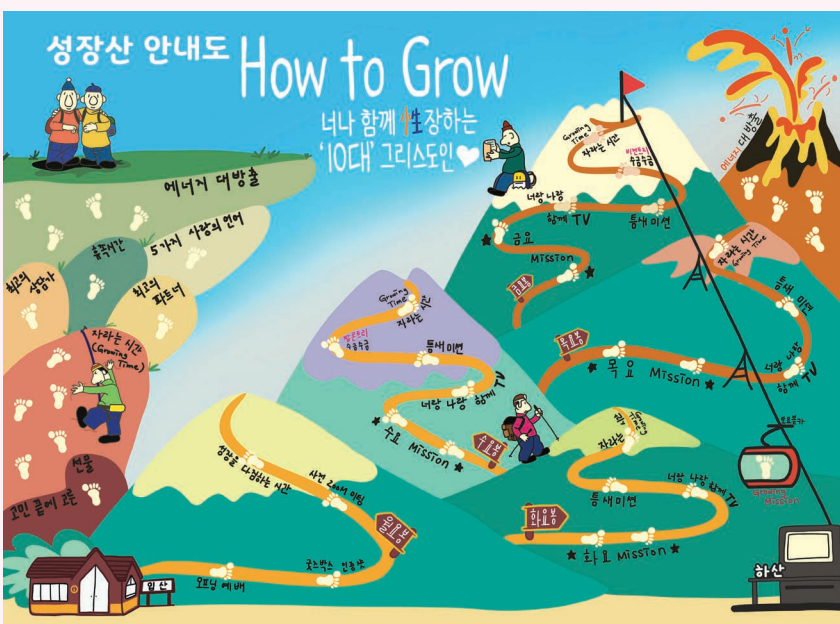
감성 러브레터



인생극장



플로깅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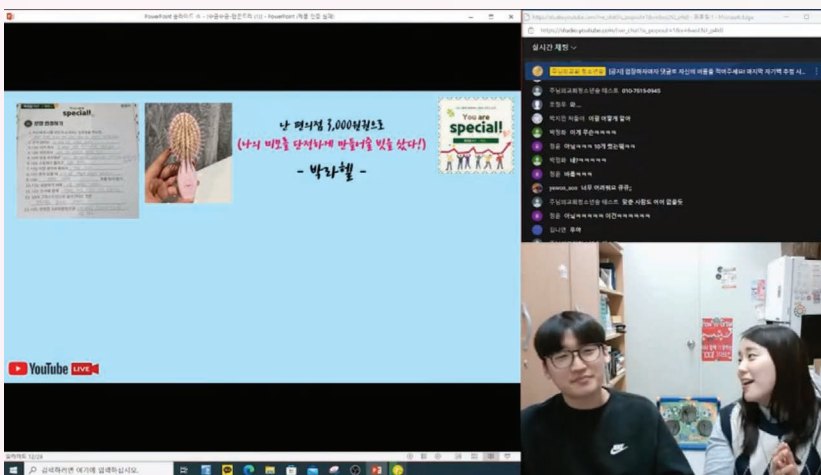
수련회 시간표

청소년 | 거울수련회

모든 미션 수행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최종 관문인 그로잉 미션에 도전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부모님 수련회의 열기 또한 학생·교사 수련회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매일 주어졌던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상담가, 5가지 사랑의 언어, 휴족 시간 미션 등을 통해 자녀와 더욱 가까워졌고 자녀를 전보다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수련회에서도 최종 관문인 그로잉 미션에 도달하신 분이 51분의 참여자 중 무려 38분이나 계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 안에서 “나와 너”의 순이 아닌 “너와 나”의 순서를, 혼자서 넘어 함께 성장하는 가치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 미션 외에도 줄넘기를 통해 매일 에너지를 대방출하거나, 등산 이벤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누리는 경험도 가졌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눠 부서별로 진행된 수금수금 팝콘트리, 비전트리에서는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목요일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3:1 인터뷰 식으로 진행된 순퀴즈 온 더 러브에서는 진솔한 아이들의 고백을 가득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수금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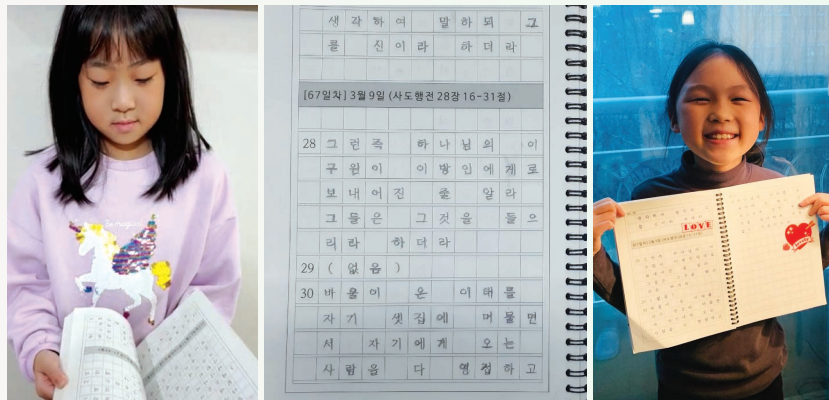
매일 밤 10시마다 진행된 그로잉 타임에서는 미디어 사용을 멈추고 메시지 성경을 읽거나 성장일기를 쓰는 시간을 통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수련회 중간에, 스타트 미션으로 심었던 식물들이 싹이 나서 기뻐하던 참여자들의 기뻐하던 카톡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미션들을 수행하고 앱에 인증하는 과정 중에 나 자신을 깊이 알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학생들의 마음 담긴 후기들을 VIP Ministry 앱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다음 주에도 “성장이의 세포들2”토크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리뷰들을 보며 은혜 안에서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너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잊지 않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함께 걷는 주님의교회 청소년 숲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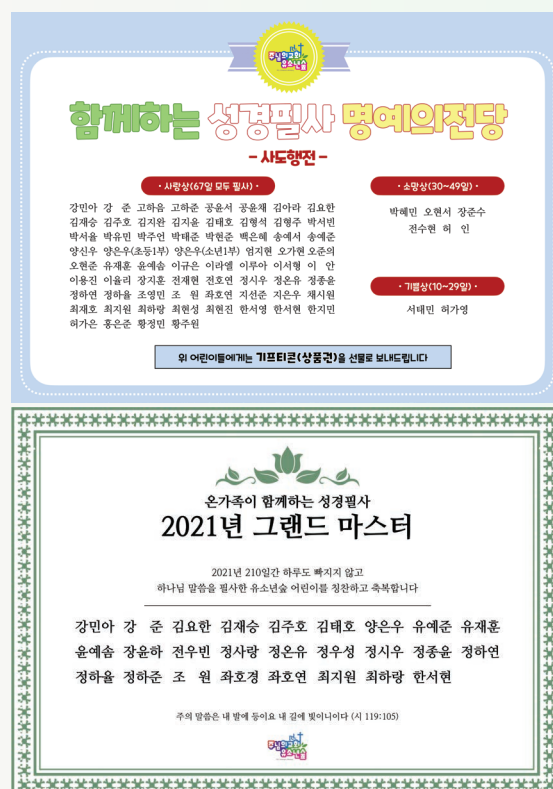
조영찬 전도사 / 청소년숲

유소년 | 성경필사 명예의 전당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은 초등학교 1~6학년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유소년숲 어린이들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성경필사’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유소년숲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어린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유소년숲 어린이들은 성경필사 권별 설명을 읽으며, 성경필사 각 권을 마칠 때마다 필사 분량에 따라 선물을 받고 ‘성경필사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사도행전 필사에는 총 73명의 어린이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특히 작년에는 21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사한 유소년숲 어린이들을 '2021년 성경필사 그랜드 마스터'로 칭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필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심을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는 유소년숲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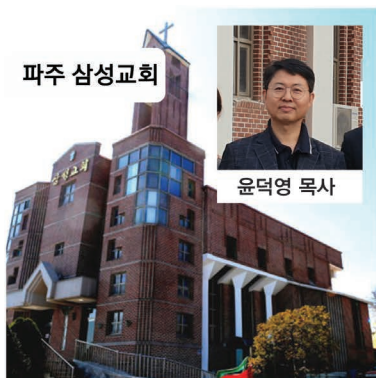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남여선교회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을 이어가는 남여선교회

요즈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는 “모이기에 힘썼던”(행2:46) 초대교회 상황과는 다르게, “모이기를 폐하는”(히10:25) 모습이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여전도회를 맡게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장들이 모여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핍박이 있을 때마다 흠어져 전도해 나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낸 사역이, 지방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후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선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우선 올해에는 지방 소도시에서 있는 6개 형제교회를 선정했습니다. 형제교회란 주님의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각 여전도회의 여섯 회장들이 한 달여 동안 잠재 회원 명단을 주님께 올려놓고 이름을 부르며 회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후에, 3월 6일과 13일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회원 등록을 받았습니다.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



동해 하늘꿈교회

신화식 목사



음성 늘푸른교회

유기영 목사



포천 송우제일교회

이창현 목사



춘천 맑은세상세린교회

정희성 목사



영주 평강교회

홍성욱 목사

그 결과 남선교회는 102명, 여전도회는 228 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주셨습니다. 등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등록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등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6개 형제교회를 1차: 4월 20일(수) 음성 늘푸른교회(유기영목사), 2차: 5월 25일(수) 동해 하늘꿈교회(신화식목사), 3차: 5월 29일(주일) 춘천 맑은세상세린교회(정희성목사), 4차: 6월 19(주일) 파주 삼성교회(윤덕영목사), 5차: 9월 21일(수) 포천 송우제일교회(이창현목사), 6차: 10월 12일(수) 영주 평강교회(홍성욱목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사역으로 남·여 선교회 연합활동으로 4월 16일에 부활절 대청소가 있고, 남선교회에서는 4월 23일(토)에 등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이 허용되면, 남선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블레싱 기도회'를, 1여전도회와 2여전도회에서는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에 성경통독과 암송 그리고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상례팀 상시 지원, 헌혈, 통일 바자회,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과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여전도회 회원들이 성미 한술갈씩 떼어 놓았다가 작은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선배님들의 믿음과 헌신을 이어가는 주님의교회 남·여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정숙 권사 / 여전도회연합회장

학원선교부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

2022년 학원선교부 사역, 시작합니다.

학원선교사역의 취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청소년에게,

- ①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어른,
- ②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 ③ 기도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보호자이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되어주는 것이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들이 다시 뭉쳤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학교 상황에 맞춰 일부의 사역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학교의 전면 등교와 함께 정신여중 사랑어머니(인성 훈련) 사역과 정신여고 기도어머니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10일, 사랑어머니 준비 모임을, 3월17일 기도어머니 팀장 모임을 갖고, 학원선교 사역에 대한 의미와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사랑어머니 사역은 '나눔과 섬김 수련회'에 참여하는 정신여중 2학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인성훈련(오후 1시~3시)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아쉬운 점은 인성훈련 후, 1:1로 만나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제시'수업은 코로나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도어머니 사역은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3월~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년 8~9회) 성경수업 시간에 만나 청소년의 친구로, 좋은 어른으로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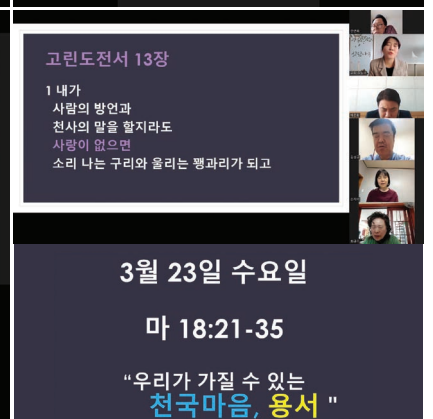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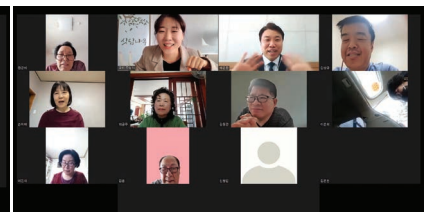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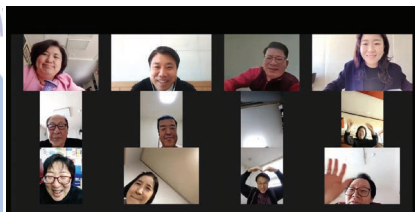
청소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학원선교부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를 통해, 정신여중고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심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학원선교부

식당나무
사순절 수요기도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의교회 장애인사역부 식당나무는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주제를 품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Zoom) 사순절 수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 지구촌 온 누리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중 수요일을 공동기도의 자리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식당나무는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주신 각자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암송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큼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길 기대하며,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사랑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식

2022 평화와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회

지구촌 한쪽에서 들려 오는 전쟁의 소식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갈등과 평화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총회는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왔다. 이번 기도회 또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가 요구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기도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년째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화 문제이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이 또한 적잖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확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셋째는 국내 문제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에 이어 급기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어 평화를 갈망하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번 기도회는 총회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교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기도회를 제안하고 주관하는 역할은 106회기 총회에서 처음 조직된 중재기도위원회가 맡는다. 오는 13일 '2022 평화와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열리는 이번 총회 차원의 전국 기도회에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독교공보

한국기독교공보
기사

사순절, 기독교인의 묵상 생활을 돕는 문화콘텐츠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은 말씀과 묵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다. 문화선교연구원(원장:백광훈)은 이번 2022년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의 묵상 생활을 돕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추천했다. 백광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위협은 우리를 불안하고 낙담되며 단절되게 만들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발견하려 하고 서로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힘과 마음을 쏟는다"면서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언제나 묵묵히 사랑해주시며 묵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자"고 밝혔다. 문화선교연구원은 팬데믹의 시대에 진정한 '함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 2편과 고난을 넘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찬양유튜브를 소개했다.

영화 야곱 신부의 편지(Letters to Father Jacob) - 드라마 / 핀란드 / 74분 / 2012.5.10 국내개봉
제34회 홍콩-국제영화제,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핀란드'영화로 상영시간은 74분으로 짧은 편이다.

종신 복역 중 갑작스러운 사면을 받고 출소한 레일라는 사면 조건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 신부에게 보내진 편지들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 삶의 어려움을 적은 이들의 편지에 답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야곱 신부를 레일라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자, 레일라는 실의에 빠진 야곱을 위해 가짜 편지 내용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내면의 상처를 누르고 살아가거나 삶에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야곱 신부의 편지'를 통해 진정한 '함께'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팬데믹으로 타인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배운 것처럼 간절하고 묵직한 영화는 서로에게 열지 않았던 '마음의 문'에 치유제가 될 것이다.

영화 오두막(The Shack) - 드라마 / 미국 / 132분 / 2017.4.20. 국내개봉

맥은 가족 여행 중 끔찍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었다. 어느 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오두막'으로 오라는 초대 편지 한 통을 받는다. 그 곳에서 자신을 '파파'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파파'의 아들 '예수', 그리고 바람의 숨결 '사라유'를 만난 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광경에 말을 잊지 못하는데...

형식적인 종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인생의 슬픔과 상처가 새로운 만남들과 뜻밖의 대화를 통해 치유되는 신비로운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다가온 부활처럼 '오두막'은 우리의 상실과 역경에 매몰되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삶의 실마리를 찾게 할 것이다.

유튜브 지나(Gina)

힘들고 외로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찬양 채널이다. 'Gina'는 딸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더 특별하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따뜻함이 있다. 찬양 영상마다 수많은 이들이 찬양을 통해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소망을 갖는다는 댓글 반응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넘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지나



달빛마을

유튜브 달빛마을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찬양을 듣는 것처럼 편안함을 주는 찬양 사역자 부부 달빛마을. 달빛마을의 찬양은 오랜 시간 마음을 놓고 찬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팬데믹 상황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된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 잔잔한 감동과 치유를 받는다는 비기독교인들의 반응도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채널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고 빠른 외부의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최은숙 기자 / 한국기독교공보

찬양대 찬양일기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

성경에는 음악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신하들의 제언에 따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 때 준비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삼상16:18). 사울에게 불려온 다윗은 음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16:23).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복음을 접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찬양대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과 관련된 찬양을 드렸습니다. 3월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죄인의 고백’, ‘사랑의 주 예수’, ‘주의 보혈’, ‘내 구주를 더욱 사랑’입니다.

첫째 주에는 ‘죄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엔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내 이름 없이 쓰이길 원하리”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사랑의 주 예수’를 통해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맑게 하셨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주의 보혈’을 통해 “주의 보혈은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넷째 주에는 ‘내 구주를 더욱 사랑’을 통해 “너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주”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신앙고백을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심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날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섯 차례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창조된 피조세계 전체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풍부한 감성을 실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미적인 하나님, 감수성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매주 ‘듣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린 죄인의 고백, 보혈의 능력, 사랑의 주 예수, 내 구주를 더욱 사랑 등의 찬양에 대해서는 ‘듣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150: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150:6).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성도의 글

철창 안에서 온 편지 - 사형수의 편지

사랑하는 선교사님!

서울구치소에 오실적마다 선교사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번 삼일절에 무기징역으로 떨어지면 좋겠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약사범들에게만 강의를 하니 먼발치에서 바라보게 하는 교정행정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따라 어둠이 짙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니, 가족의 곁으로 찾아가는 새들이 부럽기만 하네요. 나도 가족이 있는데 순간의 실수로 창살을 붙들고 기약 없는 세월만 살아 가야 되니, 선교사님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하찮은 미물도 날이 저물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가고파도 가지 못하고 마음만 담 밖으로 내보내는 저의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다.

구치소에 들어오실 적마다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선교사님을 뵈게 되네요! 선교사님은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면서 갓 구운 따뜻한 도넛을 입어 넣어주시면서 지금 막 만든 거야 하시는 선교사님! 순간의 실수로 담 안에 갇혀 있는 사형수의 심정을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우리들을 찾아 주시는 선교사님 고마운 은인!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운 가족들을 가슴에 그려보며, 많은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굶은 쇠창살과 하얀 15척 담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서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를 읽어보고 더욱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신앙이 못 되어 때로는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서 사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저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짜증과 불만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신앙심이 부족하여 가끔씩은 빨리 형이 집행되어,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진실한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은인들이 계시기에,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의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교사님 설날에 어디가요?’하니깐 ‘기도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하는 말씀을 듣고서 살고 싶은 욕망이 용솟음칩니다. 그날 한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기에 말입니다. 선교사님도 혼자 외롭게 설날을 맞이할 텐데 저 대신 우리 집에 가서 설날을 맞이하면 어떠실지요? 그럼 다시 뵈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두서없는 글 이만 줄일까 합니다.

서울구치소 담 안에 있는 형제가 / 이드보라 선교사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뷰티풀페어런팅센터
2022년 상반기 교육일정**

해피맘스쿨	3/8 - 4/26 (화) 오후 1:00	현장, 온라인 병행	김운선 목사 010-4773-8186
아름다운 부모학교	3/11 - 4/29 (금)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세물학당	3/12 - 11/5 (토) 오후 6:00	온라인 강의	이은미 전도사 010-2376-6561
마더와이즈	3/20 - 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정은영 목사 010-9592-0820
파더와이즈	3/20 - 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센싱나무	3/23 - 6/15 (수) 오전 10:30	현장 강의	이은미 전도사 010-2376-6561
결혼예비학교	5/15 - 5/29 (주일) 오후 4:00	현장 강의	이지형 전도사 010-4817-0109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2/12 3/12 5/14 6/11 (토) 오전 5:20	매일 둘째 주 (토) 오전 5:20 현장, 온라인 병행	김경민 전도사 010-7126-2712

주님의교회

**다들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물학당**

다들세대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물학당
다들세대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물학당

기간 3.12 - 5.28 (상반기) 9.17 - 11.5 (하반기)
시간 매주 토요일 6-8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강사진

고원석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도일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기준 목사 한국교회개발원
이상원 교수 장신대 목회신학과	이상훈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이은미 전도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임경순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한순애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장구만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정영택 목사 중앙총회, 다들세대	주선영 목사 천 모세공관교회 부목사	홍정근 목사 장신대교회 담임, 교무팀

주님의교회

**너나들이
예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10)

♥ 주일 | 오후 1시 ♥ 장소 | 3층 초등부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께로
더 가까이**

4.11(월) - 16(토), 오전 5:20

4.11(월) - 13(수) 임영수 목사(모세공관교회 대표)
4.14(목) - 15(금) 김운용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4.16(토) 김화수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목사)

• 성금요가정예배
4.14(목) 오후 7시 ~ 4.15(금) 오후 10시 <주님의교회 유튜브>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모집**

2022년 3월 17일~6월 9일(매주목요일)

대 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30,000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주님의교회 등록교인(본인부담 50,000원)
특 전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등록문의 김희수 부장 010-5302-3175
이부자 총무 010-3630-5955

2021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2022. 3. 6 (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2022. 4. 10 (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1차선거 2022. 5. 15 (주일), 2차선거 2022. 5. 22 (주일) 예정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일 기준)	자격 및 성품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성당한 식견과 동순 능력이 있는 자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건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항존직(은회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회 안수집사, 시무, 은회권사, 협동장로)
- 개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1년 12월 5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교회일정

- 4/10(주일) 세례 및 입교 예식, 정기당회
4/11(월)~16(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17(주일) 부활주일

알립니다

1.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4/11(월)~4/16(토) 오전 5:20

장소: 대예배실

주제: “주께로 더 가까이”

강사: 임영수 목사, 김운용 목사, 김화수 담임목사

4/11(월)~13(수) 임영수 목사(모세골 공동체 대표)

4/14(목)~15(금) 김운용 목사(장신대 총장)

4/16(토) 김화수 담임목사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김화수

편집인: 유정식

발행처: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
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